

中 왕이 부장, 시진핑 뜻 전하러 내일 방북

비핵화 해법·관계회복 논의 중국 포함 4자회담 강조할 듯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 당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북한다. 이번 방북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데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왕이 국무위원이 5월2일부터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루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왕이 국무위원이 방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으로부터 듣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중언이 이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과

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주목하면서 중국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중 경제·무역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당대 당 교류를 증진하는 중국이 송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아닌 왕이 국무위원을 직접 북한에 보내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개선

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직후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초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 또한 시 주석의 방북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정상회담 앞둔 북한 사회주의 흔들릴라 내부 단속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용 관영 매체를 통해 잇달아 미국식 체제를 비난하고 있어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사회주의는 인류 공동의 이상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정세는설에서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에 앞날이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확증되고 있다”며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월가 시위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면서 자본주의 관계론이 널리 파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현 사회제도에 반항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한 데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찢고 쓰인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문은 전날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맞을 수도 없다는 것. 때때 (한 개 한 개) 나라는 그 누구의 손을 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실정에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고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식 체제에 대한 비난 논조를 이어가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자칫 이완될 수 있는 주민의 사상과 의식을 단속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업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당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식 개혁노선을 걷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프간 자폭테러...기자 등 7명 사망
지난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차 테러 폭발로 최소한 7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가운데, 폭발 현장에 희생자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다. AFP 통신은 이 폭발로 현장에 있던 자사 사진기자 사 마라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에 뜬 UFO는 극초음속 무기?

중국 북부 지역 상공에 초고속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출현해 중국군이 시험한 극초음속 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8시 무렵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불이 켜진 손전등처럼 생긴 비행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른 후 순식간에 산둥(山東) 성 상공을 지나 중국 동쪽 보하이(渤海)만으로 사라졌다.

1분여 동안 비행한 이 물체는 매우 빠른 속도임에도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해 목격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 시민들은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UFO가 출현했다”, “괴이한 현상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갓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비행체가 중국군이 시험한 극초음속 무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군사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도중에 미사일로 분리된 후 극도로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미국 외교전문잡지 ‘디플로맷’은 지난 해 11월 중국군이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동풍(東風·DF)-17’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무기의 최소 속도는 마하 5(시속 6120km)로, 중국은 이미 마하 10의 극초음



중국 북부 상공에 출현한 초고속 미확인 비행물체. <중국 인터넷 캡처=연합뉴스>
속 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황동(黃東)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레이저 무기로만 요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레이저 무기의 개발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극초음속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현재로서는 대적할 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30 당 현종의 후궁 양귀비

양귀비(楊貴妃, 719-756)의 본명은 양옥환으로 당 현종의 후궁이 되어 빼어난 미모와 재주로 총애를 받았다.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사천으로 피난 중 마의역에서 목을 매 죽었다.

옥팔찌를 끼고 태어나 옥환(玉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부친 양현염이 일찍 죽자 숙부 양현교의 양녀로 들어갔다. 일찍부터 뛰어난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날 하녀들과 나들이 나갔다가 현종의 총애를 받는 무혜비의 딸 함의공주를 만났다. 둘은 친구가 되었고 옥환은 공주부로 자주 놀러갔다. 공주의 남동생 수왕 이모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 옥환을 처로 맞이했다. 부부 사이의 금슬은 좋았다. 호사다마랄까. 737년 무혜비가 갑자기

는 한국부인, 귀국부인, 진국부인에 봉해졌다.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각종 진상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양씨의 재력이 황궁에 비금갈 정도가 되었다.

귀비의 친척오빠 양소가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했다. 이제에 밝아 당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 창고의 충실함이 고금에 비할 바가 없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재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황제는 그에게 국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그는 이임보의 정적이 되었다. 752년 이임보가 병사하자 재상이 되고 40개나 되는 관직을 독식했다.

이임보는 사후 관직을 박탈당하고 부관참시 되었다. 평로, 범양, 하동 절도사인 안록산이 양국충의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혼혈아 출신으로 10만명의 군대를 거느린 안록산이 눈의 가시

화무십일홍...‘안록산의 난’ 때 생 마감

세상을 떠났다. 수왕의 지위도 불안정해졌다. 현종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수왕 이모와 총왕 이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환관 고력사의 충고에 따라 형인 총왕을 낙점했다. 무혜비가 죽자 현종은 적막감에 빠졌다. 후궁이 수천 명이었으나 마음이 가지 않았다. 고력사는 절세미녀인 옥환을 권하였다. 머리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현종은 망설였다. 그러나 일찍이 고종도 부친 태종의 후궁 무추천을 황후로 받아들인 전례가 있었다.

호한(胡漢) 결합의 성격이 강한 당 왕조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여전도사가 되어 태진(太眞)이라는 법명으로 궁궐에 들어왔다. 그녀는 몸이 풍만하고 재래가 요염하였으며 음울을 알고 품성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빼어나 황제의 뜻을 잘 받들었다. 한 해가 지나지 않아 총애하기를 무혜비와 같았다. 궁안에서 ‘낭자(娘子)’라고 부르며 모든 예우를 황후처럼 하였다.

현종은 국사를 재상 이임보에게 위임하고 향락에 빠져들었다. 745년 8월 귀비로 봉해졌다. 거처가 태진궁에서 흥경궁으로 옮겨지고 의복, 음식, 가구 등이 황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양씨 일족의 지위도 크게 상승했다. 부친 양현염을 기려 제국공에 봉했다. 양부 양현교에게는 광록경은칭 광록대부의 봉호가 내려졌다. 세 언니

였다. 746년 장안에 입조한 안록산은 양귀비의 양자가 되었다. 미녀와 추남의 기이한 모자 관계가 시작되었다. 생일에 황제가 거액의 목욕비를 하사할 정도로 안록산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양국충은 그를 낙마시키려 갖은 술책을 다부렸다. 결국 755년 안록산은 거병했다. 양국충이 목욕을 무너뜨리고 장안 외곽의 동관조차 돌파했다. ‘안록산 파우가 될 할 수 있겠어’라는 조정의 방침이 부른 재앙이었다.

장안을 탈출한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가는 중 마의역에 도착했다. 굶주림과 피로로 화가 난 군인들은 사태의 주범으로 재상 양국충을 지목했다. 마침 토번의 사신 일행을 응대하던 중 누군가가 “양국충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외쳤다. 병사들은 양국충을 죽이고 양귀비의 처분을 요구했다. 황제는 “깊은 궁궐에 있는 귀비가 어찌 양국충의 모반을 알겠는가”라며 변호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고력사가 불당에서 그녀를 목졸라 죽였다. “육군이 떠나지 않아 어찌할 도리 없이 미인은 굴러 말 앞에서 죽네. 군주는 구하지 못해 얼굴을 가리고 돌리는 얼굴에 피 눈물이 흐르네.” 백거이의 장한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녀의 나이 38세였다. 경국(傾國)의 미녀 양귀비는 당나라를 나라에 빠뜨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호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